

2006 청정운동 광주법회

21일 원각사...송석구 국제신문 사장 강론

대한불교진흥원청정운동 본부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송광사 광주 포교당 원각사 경내에서 '2006청정운동 순회법회'를 펼친다.

지난 1995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 깨끗한 마음과 세상을 만들어가는 취지에서 시작된 청정운동은 전국 137개 불교신원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광주 법회에서는 송석구 국제신문사 사장(전 동국대 총장)이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주제로 가르침을 전한다. 문의 02-719-2606.

/곽선정기자 ksaj@kwangju.co.kr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작품전

내달 1일까지 예술대학·중앙도서관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술대학 3층 갤러리와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2006 Photographer's Week' 행사를 갖는다.



이현숙 작 '망태버섯'

이 행사는 졸업기념작품전(20일~26일)과 디지털 워크숍(21일), 사진가 초청 포토워크 발표회(22일~23일), 사진작가 초청특강(20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청작가에는 사진가 강운규와 사진비평가 박주석 교수(명지대) 등이 참가한다.

이밖에 사진영상학과 4학년 학생들의 다큐사진집 '내나무를 담양' 출판기념회와 2006재학생 과제전(28일~12월1일)도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예술계 선거열기 뜨겁다

예총 회장 김태욱·박윤모·최규철씨 출사표 미협 5명 경쟁...국악·연극협회도 선거 임박

광주 예술계에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예총, 광주미술협회 등 주요 단체장의 임기가 12월말과 내년 1월말 만료되면서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한 선거 열기가 한창이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선거는 내년 1월 중순에 진행되는 제 7대 광주예총 회장 선거. 5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지역 내 가장 큰 예술단체인 광주예총의 경우 현 박근우 회장의 임기가 내년 1월말로 끝남에 따라 최근 후보군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임기 4년의 예총 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김태욱(58·광주예총 감사), 박윤모(53·광주공예미술협회장), 최규철(53·전남대 미대 교수)씨 등 모두 3명. 또 오건탁 전 광주시립미술관장도 자천 타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직 선거일이 멀어 남아 있는데도 특히 연극 분야에서 두 명의 후보가 동시에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단일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후보군에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김태욱씨

박윤모씨

최규철씨

예총 회장 선거는 10개 협회에서 선정한 각 5명의 대의원과 회장단 5명 등 모두 55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뽑는다.

1천 7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미술협회 선거의 경우 일부에서 '예총 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 29일 치러질 이번 제8대 지회장 선거에는 나상욱(조각가) 정광주(서예가), 정순이(서양화가), 정흥기(서양화가), 임종식(서예가)씨 등 모두 5명이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수 회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서양화, 서예, 한국화 등 회원들의 표심이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악협회의 경우 오는 12월 15일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원식 협회 이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 준비를 갖춘 국악협회는 오는 27일부터 후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직 뚜렷한 후보군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현 김광복 회장은 재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연극협회의 경우는 현 차영호 회장의 유임이 유력한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선거일정 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임기 2년에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한 광주시립예술단체 단장들도 물결이 진해왔다. 10월말로 홍성덕 단장의 임기가 만료된 광주시립국극단은 최근 국악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송순섭씨를 신입단장으로 위촉했다.

광주시립합창단의 경우 4년 동안 재직했던 유병무 전 단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당분간 상임 지휘자를 위촉하지 않고 객원지휘 체제로 꾸려갈 계획이다.

그밖에 오는 12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영에 광주시립무용단장의 경우는 재위촉, 공모, 영입 가운데 적합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임 광주시립국극단장에 국악인 송순섭씨

신임 광주시립국극단장으로 국악인 송순섭(67·사진)씨가 위촉됐다.

고흥에서 태어난 신임 송 단장은 송흥록·송만갑·박봉술로 이어지는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소리꾼으로 '송만갑·박봉술류 적벽가'로 지난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지정됐다.



송 단장은 지난 1994년 전주대사습 판소리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광주 전남도립국악단 차악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송 단장은 한국전통예술진흥회 광주 지부장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환의 문화카레

'스타파워' 환상을 깨라

얼마 전 영화관들을 깜짝 놀라게 한 할리우드 발(發) 빅뉴스가 있었다. 미국 메이저 영화사 가운데 하나인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14년간 동고동락해온 톰크루즈를 썬(烹)한 것이다. 톰크루즈가 누군가. '탑건' '레인 맨' 등 출연하는 영화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할리우드의 내로라 하는 흥행보증수표가 아니던가. 그런 대스타가 허투어짐에 버림(?)을 받았다니 놀랄 수밖에.

영화사가 톰크루즈와의 계약약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스타파워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작 '미션 임파서블 3'가 믿었던 북미지역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계별별의 직격탄이 됐다. 분석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스타=흥행' 공식에 회의의 풍미를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 몇몇 스타파워의 에이브러햄 레비비드 교수는 영화 200편을 연구한 결과 '영화 흥행은 예산, 관람등급, 배급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스타와 함수관계는 아니다'며 "스타파워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스타=흥행' 공식이 유효한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듯 하다. 영화계에서 통용되던 '빅캐피탈'이 최근엔 뮤지컬에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 공연기획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뮤지컬 '렌트'의 입장권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2시간 만에 매진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매진사태의 주인공은 영화배우 조승우. 초특급 개런티를 받고 '렌트'에 캐스팅된 그는 기획사 측이 지급한 '몰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막강한 티켓파워를 과시했다. 뮤지컬 배우 신동엽씨와 더불어 캐스팅(한 배역을 두 명의 배우가 번갈아 가며 공연)된 그가 출연하는 공연(총 22회·7천700석)의 티켓을 구하기 위해 수만 명의 관객들이 한바탕 예매전쟁을 벌인 것이다. 접속자량이 폭주하는 바람에 공연기획사 홈페이지가 서버를 일제히 다운됐다. 급기야 원래 판매가의 2~3배가 넘는 암표까지 등장했다.

스타가 출연하는 공연에 관객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조승우와 함께 '렌트'에 더블캐스팅된 신동엽의 공연은 관객들이 철저히(?) 외면한다는 데 있다. 같은 작품인데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연계 안팎에서는 (관객들이) '렌트'를 보러 가는 것인지, 조승우를 보러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작품성이나 다른 출연자들이 아닌 배우 한 개인만을 보고 영화를 향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소비패턴이 아니다. 스타의 명성에 현혹돼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고가 브랜드를 구입하는 '허위외식'과 다를 바 없다. 문화예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객의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다. 내면세계를 살찌우는 문화소비가 과시용 명품구매와 같아서는 안 되겠는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Shin Yang Park Hotel advertisement for '한가위' (Hangawi) restaurant. Features images of Korean food and promotional text: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연말연시모임', '상견례', '각종세미나(60인 연회장 완비)', '돌잔치', '고희연'. Includes contact info: TEL. (062)234-5815, 234-1116.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첨단월계공인중개사' (Advanced Moon-gye Real Estate Agency). Services include '급매매' (Quick Sale), '첨단 도심 30m도로점' (Advanced City 30m Road Point), '1000평 공장·창고부지적합' (1000-pyeong Factory/Warehouse Site Suitability), '첨단중심 상업지역' (Advanced Center Commercial Area), '첨단 원룸 건물급매' (Advanced 1-room Building Quick Sale), '첨단 인근 자연·생산지' (Advanced Nearby Nature/Life Site), '첨단 인근 자연·생산지' (Advanced Nearby Nature/Life Site), '첨단 도심 30m도로점' (Advanced City 30m Road Point), '급매매' (Quick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Services include '산림매매' (Forest Sale), '건물매매' (Building Sale), '전원주택매매' (Country House Sale), '건물매매' (Building Sale), '주유소매매' (Gas Station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Features 'GG경매컨설팅(주)' (GG Auction Consulting Co., Ltd.) and '한글1등브랜드 지지옥션의 명예와 신뢰를 드립니다' (We honor and trust the Korean No. 1 brand Giga Auction). Contact: 대표 김홍식: 016-274-4948.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천공인중개사' (Gecheon Real Estate Agency). Services include '투자추천물건' (Investment Recommendation), '대인부동산컨설팅' (Da-in Real Estate Consulting), '영어학원 임대' (English School Rental), '토지매도' (Land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Riche Real Estate Management Co., Ltd.). Services include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송골' (Hwasun-gun Nam-myeon Daegok-ri Cheongsonggol), '시골풍: 파이프비닐하우스' (Rustic: Pipe Vinyl Greenhouse), '현황: 평탄한 지형임' (Status: Level Terrai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Auction Korea Court Auction). Services include '아파트' (Apartment), '주택·대지' (House/Land), '공공' (Public).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Services include '아파트' (Apartment), '주택·대지' (House/Land), '공공' (Public).